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자 본격 육성

전주시, '스마트 창작터' 참가자 20팀 선정... 최대 300만원 시장검증비 지원

전주시가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분야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자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2017 스마트창작터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20개 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팀들은 레고처럼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조형 제작 플랫폼인 '내 손으로 만드는 조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창업팀들로,

사전 교육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의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팀들은 각각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시장검증비를 지원받아 한 달 동안 MVP(최소요건제품) 제작과 고객반응조사 등의 시장 검증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향후 창업진흥원의 추천을 통해 약 8개의 사업화지원팀을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과 사무공간,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60명의 창업팀 및 전

문 멘토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을 도입해 아이디어톤(Idea-thon), 마켓톤(Market-thon), 멘토링데이 등 창업실습교육을 지원했다.

린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최소요건 시제품으로 빠르게 제조한 뒤 시장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방식으로, 교육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 및 지식 재산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현장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을 완성했다. 또, 실제 아이디어 및 지식 재산화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스킬에 대한 실질적인 학

습도 받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피드백까지 전문 멘토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린스타트업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사업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고, 초기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가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전자영수증 적립제도' 홍보를 벌이고 있다.

“범죄로 피해입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전주지역 경찰 '전자영수증 적립제' 홍보 벌여

전주지역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9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마트 전주지점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전자영수증 적립제도'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번 홍보 활동은 영수증 적립제도가 변경된 것을 알려 범죄피해자 기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종이영수증 모금함을 마트 안에 설치해 적립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설치 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자영수증으로 적립된 기금은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지원 및 치료비로 쓰이게 된다. 기부 당사자의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강황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및 정책에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부안의 한 중학교서 성추행

도교육청, 진상파악 나서

전북 부안의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일어 전북도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남교사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해당 학교로 나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유선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현재 확인중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검찰, 도내 모 인터넷 신문

대표 자택 ·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전북 도내의 모 인터넷 신문 대표에 대해 사무실 및 자택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19일 검찰은 모 인터넷신문 대표 A씨가 도내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해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원광대 세월호 추모 현수막에 '일베 리본' 이?

추모를 위한 리본이 아닌 일베서 '조롱하는 의미' 담겨진 리본모양 새겨져 대학 측 '즉각 철거할 것'



세월호 현수막에 그려진 '일베 리본'. 이 리본은 원래 모양과 다르게 끝 부분이 길라져 있다.

원광대학교 모 건물에 부착된 세월호 추모 현수막에 '일간베스트(일베)'가 유포한 리본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사범대학 건물 옆면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 대학 동문이자 단원고 교사인 고창석, 이해봉 선생 2명의 초상과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하지만 이 현수막에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리본이 아닌 일베에서 만들어 유포한 리본 모양이 새겨져

이 모양은 일반적으로 '축하나 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현수막을 건물에 내거는 과정에서 일베 리본이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 사범대학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업체가 잘못된 리본 모양을 쓴 것 같다"며 "현수막에 새겨진 리본이 일베 리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겠다"며 "다른 현수막에도 일베 리본이 그려져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간베스트는 극우·친박성향의 반사회·윤리적인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광화문 앞 세월호 추모 천만농성장 앞에서 피자과 치킨 파티를 벌여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국민의당 경선 동원' 원광대 총학생회장 사과

국민의당 광주·전남 국민참여 경선에 동원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SNS에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A씨는 최근 학생회 SNS에 "선거법을 이해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전세버스 대절에 약 150명이 버스 여섯 대에 나눠 국민경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광주 감내중견컨설팅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익산지역 국민의당 관계자를 조사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